

許叔微의 生涯와 著書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崔亨綠 · 尹暢烈*

通過對許叔微의 生涯和 著書의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崔亨綠 · 尹暢烈

通過對許叔微의 生涯和 著書의 研究得出如下結論.

許叔微(1080~1154)生於北宋, 活動於北宋與南宋之間, 他幼失父母, 乃專心於醫學學習, 五十三歲時考取科舉, 曾在官十年, 乃亦官亦醫의 儒士之代表人物.

許叔微의 著書主要有『許叔微傷寒論著三種』, 包括『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普濟本事方』, 另外據說還有『仲景三十六脈法圖』, 『治法八十一篇』, 『翼傷寒論』, 『辨類』等, 但現已不存. 現今所見의 『類證普濟本事方』, 亦即『本事方續集』, 收載於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和裘吉生의 『三三醫書』, 但要確定是許叔微의 著書尚有許多疑點.

『傷寒百證歌』是將『傷寒論』의 主要內容和歷代醫書及各醫家의 主張和一百首處方, 以七言歌訣의 形式寫成의 專著, 是現存最早의 歌訣體醫書; 『傷寒發微論』共由22論組成, 是闡發仲景與微의 傷寒論參考書; 『傷寒九十論』由90論組成, 是許叔微治療傷寒病證의 醫案集; 『類證普濟本事方』共由10卷25門組成, 載方373首, 是集自己曾試驗過의 處方和醫學理論方面의 新的領悟而著成의.

Key Words : 許叔微, 生涯, 許叔微傷寒論著三種,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類證普濟本事方.

I. 緒論

許叔微(1080~1154)는 字가 知可이고 송나라 때의 眞州(지금의 江蘇省 儀徵縣) 사람이다. 일찍이 進士에 합격하여 集賢院 學士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許學士라고도 불렀다. 11살 때 백일사이에 父母를 모두 잃고 成年이 된 후에 “刻意方書하고 攄欲以救物爲心(의서 연구에 뜻을 굳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웠다)¹⁾하여 평생

동안 濟世活人하였으며 이론과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許叔微傷寒論著三種이라 불리우는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傷寒發微論』과 『普濟本事方』 등의 의서를 저술하였다. 그는 張仲景의 傷寒論에 대하여 깊은 研究를 하였는데 傷寒論著三種과 本事方等書는 그가 傷寒論의 理論을 根據로 하고 또한 各家의 著述을 引用하고, 여기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쓴 책이다.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理論을 臨床에 결합시킨다는 原則이 들어 있는데 仲景의 辨證論治의 理論을 進一步發展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²⁾ 실지로 그가 지은 『普濟本事方』에 실린 300여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280-2601, yoony@dju.ac.kr

1) 劉景超, 李具雙 主編.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

版社. 2006. p. 83.

首의 처방에는 유사한 변증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믿을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普濟本事方』 말미에서 “予既以救物爲心하여 予而不求其報하니 則是方也 烏得不與衆共之리오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어 주되 그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 이 보제본사방책을 어찌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오)”³⁾라 하여 仁術家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高尚한 醫德을 바탕으로 傷寒論을 연구하고 雜病을 치료하여 한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許叔微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許叔微의 生涯

許叔微는 宋代의 名醫로서 字는 知可이고 眞州(지금의 江蘇省 儀徵縣) 白沙 사람이다. 일설에는 그가 毗陵(지금의 江蘇省 武進)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宋 元豐 3年(1080)에 태어나 南宋 紹興 24年(1154)에 75歲의 나이로 卒하였다.

許叔微는 11살 때에 부모를 잃고 나서 儒學 공부를 하기 始作하였는데 “嘗舉鄉薦”하였으나 여러 차례나 “省闈不第”하다가 南宋 紹興 壬子年(1132)에 53歲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5等으로 進士에 及第하게 되었다. 그가 일찍이 徽州와 杭州의 敎官을 歷任하였고 또한 翰林集賢院의 學士를 歷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許學士”라고 불렀다. 許叔微는 자신의 著書인 『普濟本事方』의 自序에서 “餘年十一, 連遭家禍, 父以時疫, 母以氣中, 百日之間, 并失怙恃, 痛念裏無良醫, 束手待盡, 及長成人, 刻意方書, 誓欲以救物爲心.”이라고 하여 自身이 醫學을 研究하여 生命枯濟를 뜻으로 삼게 된 契機를 言及하고 있다. 그가 11歲 되던 해에 父母님이 先後로 病으로 돌아

가 버린 크나큰 衝擊을 겪으면서 “醫之道大矣, 可以養生, 可以全身, 可以盡年, 可以利天下與後世.”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 儒學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醫學을 깊이 研究하기 始作하였다. 그는 患者를 診察하고 治療함에 있어서 貧富를 묻지 않고 報酬도 따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患者를 救濟해 주었기에 當時의 사람들에게서 크게 稱誦을 받게 되었다. 晩年에 이르러 그는 또 “謾集已試之方及所得新意”하여 醫書를 著述함으로써 自身의 所重한 經驗을 世上에 傳해 주었는데 그는 이 問題에 관하여 “餘既以救物爲心, 予而不求其報, 則是方也, 焉得不與衆共之.”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의 高尚한 醫德을 엿볼 수가 있다. 山陽의 範應德은 許叔微의 出衆한 弟子로서 許叔微의 傳授를 깊이 받은 사람이다.⁴⁾

許叔微의 一生은 여러 가지 病을 많이 앓았던 一生이었는데 『普濟本事方』을 보면 이에 대한 記述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그는 39歲 때에 腰痛不可屈折에 걸린 적이 있었고, 40歲 때에는 蟲疾을 앓았으며, 64歲 때에는 食慾不振으로 고생하였고, 또 便血로 30여 년이나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停飲, 虛損, 臂痛 등의 疾病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疾病을 몸소 體驗하고 經驗한 것은 그의 醫學研究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10여년의 관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馬跡山(지금의 江蘇省 無錫 馬山鎮 一帶)에 隱居하면서 岐黃의 道에 專念하면서 醫學을 專業으로 삼았는데, 무릇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晝夜를 不問하고 貧富를 不問하면서 오직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만 뜻을 두어 患者의 報答을 바라지 않았기에 當代 사람들의 많은 稱誦을 받게 되었다. 『傷寒百證歌·張郊序』를 보면 “建炎初, 劇賊張遇破眞州, 已而疫疾大作, 知可遍曆裏門, 視病與藥, 十活八九.”라고 許叔微의 行蹟을 言及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精微롭고 高明한 醫術과 高尚한 醫德을 엿볼 수가 있다.

그 외에 許叔微는 南宋의 蕪王인 韓世忠 등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 馬山鎮 桃塢村에 位置하고 있는 “梅梁小隱”의 홀에는 아직도 韓世忠

2)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162.

3) 許叔微 著.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 22.

4) 陳克正 編著. 宋代名醫許叔微.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

이 許叔微를 위하여 쓴 “名醫進士”라는 匾額이 남아 있다. 따라서 許叔微는 宋代의 著名한 醫家임과 同時에 宋代에서 士人으로서 醫師活動을 한 代表的인 人物이라고 할 수가 있다.⁵⁾

2. 許叔微의 活動年表 및 著作年表

許叔微는 『宋史』 〈列傳〉에 收錄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清代의 葉桂는 『本事方釋義葉

序』에서 “考之『宋史』, 姓名不少概見, 即儒林藝術, 曾不得一廁名其間, 而僅見之稗官野史, 抑亦何也? 不知宋自高廟而後, 國事日非, 奸良莫辨, 學士以文章經濟之身, 處閑散之位, 事權不屬, 強話何爲? ……且‘宋史成於元代, 於中朝士, 多所簡略, 安知非革蒐羅未及, 而故逸之也.’”라고 說明을 하였다. 따라서 許叔微의 年表에 대해서는 그가 著述한 著作의 序文과 跋 그리고 正文의 內容을 通하여 考證하고 推算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은 許叔微의 活動年表와 著作年表를 簡略하게 表로 整理하기로 한다.⁶⁾

年度	年 齡	事跡 및 著書
1080	誕生	北宋 神宗 元豐3년에 許叔微가 태어남.
1090	11歲	父母가 死亡함.
1115	36歲	完顏旻이 金나라를 세움.
1118	39歲	戊戌年八月에 淮南에 큰 물이 나서 城下가 連月 물에 잠겼고, 許叔微는 갑자기 數日間 臟腑가 不調하고 腹中如水吼하다가 調治하여 治癒가 되었다. 그 후로 腰痛不可屈折하다가 3개월만에 나옴.
1119	40歲	北宋宣和中에 항상 心中嘈雜을 앓다가 후에 下蟲二條하게 됨.
1123	44歲	癸卯秋九月에 牒試淮南함.
1127	48歲	北宋이 亡하고 高宗이 南宋을 建立하고 도읍을 杭州에 定함. 建炎初에 劇賊 張遇가 真州를 攻破한 뒤로 疾疫이 大發하자 知可(許叔微)는 遍歷裏門하면서 病者를 살피고 藥을 주었는데 살아난 자가 십중팔구나 되었음.
1129	50歲	己酉年 虜騎가 淮俱를 攻破한 뒤로 疫癘가 大發했을 때에 天慶에 머물게 됨.
1130	51歲	庚戌년에 避地維揚하게 됨.
1131~1132	52~53	毘陵에 머물게 됨.
1132	53歲	5등으로 進士에 합격함. 이때에 別冊『仲景脈法三十六圖』,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등 醫書를 完成하였음.
1132~1142	53~63歲	集賢院學士와 杭州教官, 徽州教官, 遷京秩(杭州)을 歷任함.
1143	64歲	癸亥년에 脾胃虛弱으로 飲食이 不進하여 스스로 曲朮丸을 數劑 만들어 服用하고 나서 飲食이 倍進함. 그 후에 『普濟本事方』을 完成함.
1149	70歲	陰陽易에 걸린 患者를 한 명 治療함. 그 후에 『傷寒九十論』을 完成함.
1154	75歲	南宋 紹興 24년에 卒함.
1165~1169		『許叔微傷寒論著三種』이 初刻 刊行됨.
1165~1173		『普濟本事方』의 乾道刊本이 刊行됨.
1175		『普濟本事方』의 張孝忠刻本이 刊行됨.
1206		징기스칸이 元나라를 세움. 『許叔微傷寒論著三種』의 元刻本이 刊行됨.
1253~1258		『普濟本事方後集』의 寶祐刊本이 刊行됨.
1672		清代의 徐彬(忠可)이 許叔微의 著書에 대한 註釋書인 『徐氏注許氏傷寒百證歌』를 지음.
1744		清代의 葉桂(天士)가 許叔微의 著書에 대한 註釋書인 『本事方釋義』를 지음.
1928		何廉臣이 許叔微의 著書에 대한 註釋書인 『增訂傷寒百證歌注』를 지음.

【표 1】 許叔微의 事跡 및 著書

5) 劉景超, 李具雙 主編.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169.

6) 許叔微年表: 주로 陳克正의 『中國歷代名醫學術經驗萃叢書宋代名醫許叔微』의 pp. 111~112를 참조함.

3. 許叔微의 主要著書

1) 概說

許叔微는 一生동안 많은 著述을 하였는데 지금은 『許叔微傷寒論著三種』으로 불리는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과 『普濟本事方』이 保存되어 있다. 그 外에도 南宋의 陳振孫이 쓴 『直齋書錄題解』에 의하면 『仲景三十六脈法圖』, 『治法八十一篇』, 『翼傷寒論』二卷, 『辨類』五卷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 散失된 狀況이다. 이상의 散失된 著作 중에서 『翼傷寒論』二卷에 대하여 『鐵琴銅劍樓藏書目』와 『儀顧堂題跋』에서는 모두 『翼傷寒論』이 바로 『傷寒發微論』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錢曾의 『讀書敏求記』의 考證에 의하면 이는 確實한 證據가 없이 臆測하는 것에 不過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仲景三十六脈法圖』에 관해서는 中國中醫研究院 文獻研究所의 張同君氏의 考證에 의하면 아마 日本의 丹波元胤이 『中國醫籍考』에서 記載하고 있는 『脈法微旨』의 可能性이 크다고 하고 있는데, 이 說에 대하여 進一步로 考證해야 할 必要가 있다.

『本事方續集』은 日本의 丹波元胤이 著述한 『中國醫籍考』에서 나타나고 있고, “類證普濟本事方後集十卷, 存.”⁷⁾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이 內容을 裘吉生在 『三三醫書』에 收錄하였는데, 『三三醫書』의 內容抄錄을 보면 이 책의 流傳過程에 대하여 “『本事方續集』十卷, 宋許叔微先生著. 市上流傳先生所著『本事方』十卷, 爲清葉天士研究醫學得力之書. 惟『續集』十卷吾國素無傳本, 且未見著於各家書目, 因之吾醫絕未知有是書. 本社主任裘君吉生得日本刻本而藏之, 所謂禮失求諸野, 洵不誣也. 其間所載各方, 較『初集』十卷中尤爲詳備. 此種秘笈, 凡吾醫家必欲鑒賞之心人人所同. 特翻印, 以餉同道之搜求遺著者.”⁸⁾라고 記錄하고 있다.

『本事方續集』이 과연 許叔微가 著述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考證된 바가 없으며, 이 책이 許叔微가 著述했다고 主張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疑心點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許叔微醫學全書』

의 編集者들은 慎重히 하기 위하여 『本事方續集』을 이 全書에 收錄하지 않고 있다. 가장 重要한 疑心點을 말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南宋의 著名한 圖書收藏家 陳振孫은 許叔微가 生活했던 時代보다 100年 정도 늦어 比較的 가까운 時代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 그가 著述한 『直齋書錄題解』를 보면 許叔微의 著書에 관하여 “傷寒歌三卷, 許叔微撰. 凡百篇, 皆本仲景法. 又有『治法』八十篇, 及『仲景脈法三十六圖』, 『翼傷寒論』二卷, 『辨類』五卷, 皆未見.”이라 하여 『本事方續集』의 이름을 言及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陳振孫이 『本事方續集』이란 책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는 것을 說明해주고 있다. 또한 清代의 沈初 등이 編撰한 『浙江採集遺書總目』은 乾隆 37年(1772)부터 乾隆 39年 여름에 이르기까지 『四庫全書』를 編修하기 위하여 準備한 書目으로서 先後로 12번이나 進書하여 총 4523種의 書籍을 收集함으로써 當時로서는 가장 完璧한 書目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浙江採集遺書總目』에도 『本事方續集』의 이름이 言及되지 않았고, 그 後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도 그 書名이 보이지 않으니 許叔微가 世上을 떠난 後의 近 700年이란 歲月동안 中國의 書目文獻家들은 아무도 『本事方續集』이란 책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說明해주고 있다. 그리고 最初로 『本事方續集』을 言及한 것은 日本의 丹波元胤이 지은 『中國醫籍考』와 莫友之가 지은 『侶亭知見傳本書目』인데 때는 벌써 淸나라 末葉이나 되었다.

둘째: 『本事方續集』의 學術主張을 보면 『普濟本事方』과 相衝되는 部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本事方續集』卷六에 記錄된 “治十種水病並根源症狀方法”을 보면 大戟·葶藶子·甘遂·檉木·連翹·芫花 등의 峻猛攻逐의 藥物을 써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그 處方을 神秘化하여 “此病去生甚遠, 取死將近. 或得良醫醫者, 得餘此方, 慎勿輕賤. 雖千金難換, 但餘欲天下人安故也.”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普濟本事方』에서 許叔微는 俗醫들이 “治水多是轉下冷藥”하여 大戟·甘遂·葶藶·芫花와 같은 部類의 藥物을 많이 쓴다고 批判하면서 『萬金方』의 十種水氣를 治療하는 紫金丹이야말로 “能量人虛實老壯, 人下項藥十六味以扶養之, 所

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611.

8) 裘慶元輯. 三三醫書第一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851.

以至老極虛之人皆可服.”라고 讚揚하였다. 이처럼 두 책에서 主張하는 學術觀點이 完全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本事方續集』의 “補藥方”을 보면 그 處方의 來源에 關하여 “餘遂日計來此醫人, 多酬黃白之物, 遂得此二方. 餘試用之, 百發百中, 獲濟者無數. 世間所有水病方藥無此二方之右者. 餘初出『本事方』前集尚有此, 後集二帙, 初深秘之, 今見前集已盛行於世, 此後集今亦略傳一二. 仁者使天下皆得, 躋盡天年, 毋罹枉斃雲.”이라고 밝혀주었는데, 『普濟本事方』에서 許叔微는 十種 水氣를 治療하는 紫金丹에 關하여 仙居하는 湛新道人이 傳해준 것이고 當塗의 『楊氏家藏方』에도 보인다고 明確하게 밝혀주고 있어 玄秘之語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本事方續集』과 『普濟本事方』의 글의 體例를 보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本事方續集』을 許叔微의 著書로 보기에 疑問點이 많이 있다고 思料된다.

2) 主要著書

(1) 『傷寒百證歌』

『傷寒百證歌』는 張仲景 『傷寒論』의 主要內容을 100首의 七言歌訣로 지은 것인데 學者가 工夫하고 외우기에 매우 편하게 하였다. 또한 歌訣의 사이사이에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그리고 華陀·宋迪·孫兆·孫尚孫·用和·朱肱·王實 등 醫家의 主張과 處方을 補充 記入함으로써 臨床運用に 보다 適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傷寒論』에 대하여 症狀을 綱目로 삼아 歌訣로 歸納하고 또한 많은 醫家들이 發揮한 內容을 收集한 것은 現存醫書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本書의 內容은 主로 아래와 같은 다섯 개 部分으로 要約할 수가 있다.

첫째: 總論에 該當한 部分으로서 脈證, 病證, 五臟死絕, 死脈, 死候 등에 대하여 총 5개의 歌訣로 構成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第1~2證의 歌訣과 第98~100證의 歌訣이 여기에 該當이 된다.

둘째: 病證의 各論部分에 該當한 內容으로서 主로 中風·傷寒·中噎, 세 가지 濕病(濕溫·中濕·風濕), 다섯 가지 溫病(溫病·溫虐·風溫·溫疫·溫毒), 似傷寒證(食積·

虛煩·寒痰·腳氣), 그리고 瘧病, 狐惑, 百合, 陽毒, 陰毒, 疫氣, 陰陽易, 婦人傷寒, 熱入血室, 差後病 등에 대한 총 17개의 歌訣로 構成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第13~14證의 歌訣과 第22~30證의 歌訣 그리고 第92~97證의 歌訣이 여기에 該當이 된다.

셋째: 病機의 各論部分에 該當한 內容으로서 主로 表證, 裏證, 表裏寒熱, 表裏虛實, 急救表裏, 無表裏證, 表裏水證, 表裏證俱見, 三陰三陽傳入, 陰陽兩感, 太陽陽明合病, 太陽少陽合病, 三陽合病, 太陽少陽并病, 陰證似陽, 陽證似陰, 陰盛格陽 등에 대한 총 17개의 歌訣로 構成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第3~12證의 歌訣, 第15~21證에 대한 歌訣이 여기에 該當된다.

넷째: 症狀의 各論部分에 該當한 內容으로서 主로 發熱, 潮熱, 往來寒熱, 汗之而熱不退, 下之而仍發熱, 惡寒, 背惡寒, 厥證, 結胸, 痞證, 發黃, 發狂, 發斑, 發喘, 發渴, 吐血, 衄血, 吃噎, 譫語, 煩躁, 懊憹, 怫鬱, 驚惕, 心悸, 冒悶, 乾嘔, 吐逆, 霍亂, 頭疼, 脊痛, 腹痛, 咽痛, 咳嗽, 遺尿, 腹滿, 虵厥, 自汗, 頭汗, 欲得汗, 舌上苔, 下膿血, 晝夜偏劇, 循衣撮空, 筋惕肉瞤, 口燥咽乾, 似瘧, 邪中二焦, 多眠, 不得眠, 小便不利, 小便自利, 大便不利, 大便下利 등에 대한 총 53개의 歌訣로 構成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第39~91證에 대한 歌訣이 여기에 該當된다.

다섯째: 治法의 總論部分에 該當한 內容으로서 主로 可汗不可汗, 可下不可下, 可吐不可吐, 可火不可火, 可水不可水, 可灸不可灸, 可鍼不可鍼, 可溫 등에 대한 총 8개의 歌訣로 構成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第31~38證의 歌訣이 여기에 該當이 된다.

『傷寒百證歌』는 一명 『擬傷寒歌』·『傷寒歌』·『張仲景注解傷寒百證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問題에 關하여서는 『讀書敏求記校證』 卷三에서는 “是書乃述張仲景之意而申言之, 刻者誤加‘張仲景注解’五字, ……知可所作各書, 有『擬傷寒歌』三卷, 凡百篇, 當即是書, 惟誤五爲三.”이라고 說明한 바가 있다.

이 책의 版本은 主로 元刻本, 明刻本, 清鹹豐(1852年)藏修書屋刊本, 清汀州張氏校刊本, 述古堂叢書本, 十萬卷樓叢書本, 翠琅玕館叢書本, 藏修堂叢書本, 鐵琴銅劍樓影抄本, 清光緒(1889年)上海江左書林石印本, 成都鉛印本, 叢書集成本, 1935年蘇州國醫書

社鉛印本, 1956年商務印書館『許叔微傷寒論著三種』本 등이 있다.

(2) 『傷寒發微論』

『傷寒發微論』은 총 22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許叔微가 自身이 『傷寒論』을 工夫하고 心得을 모아서 著述한 것을 것이다. 第1論에서는 傷寒 72證을 列舉하면서 簡명한 闡釋을 하였고, 第2論부터 以後의 內容들은 大개 體系성이 없는 短文과 割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內容들을 살펴보면 주로 桂枝湯用赤芍芍藥不同, 桂枝用桂, 用大黃藥, 傷寒慎用圓子藥, 桂枝麻黃青龍用藥三證, 林億疑白虎證有差互, 兩感傷寒, 表裏虛實, 發熱惡寒, 風溫證, 溫虐證, 傷寒以真氣爲主, 治傷寒須依次第, 傷寒須早治, 表證未罷未可下, 陰不得有汗, 仲景緩遲沉三脈, 滑脈, 弦動陰陽二脈不同, 中風傷寒脈, 中暑脈不同 등이 있다. 本書는 비록 內容이 大하되지는 않으나 모두 傷寒의 證候·病證·脈法·治法·用藥 등 問題를 言及한 內容들이기에 『傷寒論』을 工夫하는데 補助役割을 할 수 있는 한권의 좋은 參考書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책에 관하여 汪琥는 『傷寒辨注·卷首』에서 “此皆發明仲景微奧之旨, 書名‘發微’, 稱其實矣.”라고 높이 評價하였다.

本書는 일명 『張仲景注解傷寒發微論』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版本에는 元刻本, 明刻本, 十萬卷樓叢書本, 叢書集成本, 日本刻本, 1956年商務印書館『許叔微傷寒論著三種』本 등이 있다.

(3) 『傷寒九十論』

『傷寒九十論』은 모두 90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許叔微가 傷寒病證을 治療한 醫案을 모아서 지은 것이다. 醫案을 記錄함에 있어서 그는 먼저 病例의 基本狀況과 治療經過를 적어두었고 然後에 이에 대한 論評을 敘述하였다. 이 책에서 許叔微는 『內經』·『難經』·『傷寒論』 등의 典籍을 根據로 삼은 基礎하에 自身의 見解를 結合하여 醫案을 分析함으로써 發病의 機轉과 處方用藥의 心得을 밝혀주었다. 그 中에는 成功한 經驗을 記錄한 것도 있고 不治한 病例에 대한 記錄도 보이는데 現存하는 最初의 醫案專門書籍이라고 할 수가 있다. 本書는 『傷寒論』을 臨床에 運用함

에 있어서 흔하게 얻을 수 없는 重要한 參考書이며 歷代의 醫案 中에서도 上乘之作에 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傷寒九十論』은 一名 『傷寒論』 또는 『傷寒治驗九十論』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이 책에 관하여 『鐵琴銅劍樓藏書目』卷十四에서는 “『傷寒治驗九十論』一卷, 宋許叔微撰, 每證各系以論, 凡九十篇. 原書名『傷寒論』. 群人劉大生校錄, 增“治驗”字. 大生不知何時人.”이라고 說明하였다.

『傷寒九十論』의 版本을 보면 鈔本, 清鹹豐(1853年)刻本, 琳琅秘室叢書本, 求志居叢書本, 清光緒(1899年)成都崇文齋刻本, 1912年黃氏濟忠掌刻本, 叢書集成本, 1936年『中國醫學大成』本, 1956年商務印書館『許叔微傷寒論著三種』本 등이 있다.

(4) 『類證普濟本事方』

『類證普濟本事方』은 許叔微가 晩年에 著述한 方書로서 모두 10卷.으로 構成되어 있다. 許叔微는 自序에서 本書를 著述한 原則과 目的에 대하여 “設集己試之方, 及所得新意, 錄以傳遠, 題爲『普濟本事方』, 孟啟有『本事詩』, 楊元素有『本事典』, 皆有當時事實, 庶機觀者見其曲折也.”라고 말하였다. 本書는 病症에 따라 分類하고 處方을 提示하고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中風肝膽筋骨諸風, 心小腸脾胃病, 肺腎經病, 補益虛勞方, 頭痛頭暈方, 風寒濕痺白虎曆節走注諸病, 風痰停飲痰癖咳嗽, 積聚凝滯五噎膈氣, 膀胱疝氣小腸精漏, 翻胃嘔吐霍亂, 髒腑泄滑及諸痢, 虛熱風壅喉閉清利頭目, 腫滿水氣蠱脹, 腎髒風及足膝腰腿腳氣, 腸風瀉血痔漏漏毒, 衄血勞瘵吐血咯血, 眼目頭面口齒鼻舌唇耳, 諸嗽虛汗消渴, 金瘡痛疽打撲諸瘡破傷風, 諸蟲飛屍鬼疰, 腹脅疼痛, 雜病, 傷寒時疫, 婦人諸疾, 小兒病 등 25門이 記錄되고 있어 內科, 外科, 婦人科, 傷科, 五官科, 鍼灸科 등을 모두 包括하고 있다. 이 著書에는 處方이 모두 373方 收錄되어 있는데 每 處方마다 먼저 主治·方名·藥味·藥量을 記錄하고 다음에 治法과 服用法을 記錄하였다. 그 中에는 見解가 精密한 論證과 論述이 81篇 보이는데 大개 뒤에 病例를 添附하였고 條理도 매우 明晰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 處方들에서 70%는 丸·散·膏·酒·粥·鍼灸·按摩에 屬하고

30%는 湯劑에 屬하는데 煮散之劑가 絶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70여개 條目으로 이루어진 “治藥製度總例”가 있는데 藥物의 炮製方法을 紹介하고 있어 매우 實用的이라고 할 수가 있다.

『類證普濟本事方』은 略稱으로 『普濟本事方』이나 『本事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版本을 보면 주로 南宋乾道刊本, 南宋淳熙刊本, 南宋寶祐刊本, 元刊本, 清康熙刊本, 日本享保(1735年)向井八三郎刊本, 日本享保(1736年)大板新町西尾小濱書林刊本, 日本元文(1738年)刻本, 清乾隆(1750年)芸暉堂抄本, 四庫全書本, 清乾隆(1777年)王陳梁校刊本, 清刻本, 日本刻本, 日本抄本, 清徐大椿批注抄本, 寫刻本, 1959年上海科技出版社刊本 등이 있다.

(5) 『類證普濟本事方後集』

『類證普濟本事方後集』은 許叔微가 晩年에 著述한 著書로서 모두 10卷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書는 疾病에 따라 分類하고 處方을 提示하고 있는데 具體적인 內容을 살펴보면 治諸虛等並用藥總論, 治諸積熱等疾, 治諸風等疾, 治諸氣冷等疾, 治諸腰疼等疾, 治脾胃等疾, 治口舌牙齒諸疾, 治諸眼目等疾, 治諸喘嗽等疾, 治癩癰等疾, 治鼻耳諸疾, 治癰癩諸疾, 治水腫等疾, 治諸瀉痢等疾(附大便秘), 治諸痔漏等疾, 治打撲傷損等疾, 治諸寒虐等疾, 治腸風酒痢等疾, 治諸寸白蟲等疾, 治婦人諸疾, 治小兒諸疾, 治諸雜病 등의 총 22門이 보이고 收錄한 處方은 총 311方이 있다. 이 책에는 著者의 論評을 적은 部分이 比較的 적고 醫案도 添附하지 않고 있다.

『類證普濟本事方後集』은 일명 『續本事方』이나 『本事方續集』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그 版本을 보면 南宋寶祐刊本, 日本享保(1735年)向井八三郎刊本, 日本元文(1738年)刊本, 鈔本, 1924年杭州三三醫社鉛印本 등이 있다.

III. 結 論

허숙미의 생애와 저서에 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許叔微(1080~1154)는 北宋시대에 태어나 南宋에 걸쳐 활동한 의가로 어려서 父母를 잃고 醫學공부에 전념하였으며 53에 과거에 급제하여 10여 년간 관직생활까지를 한 醫家이면서 士人이었던 代表의 人物이다.
2. 許叔微의 著書로는 『許叔微傷寒論著三種』으로 불리는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과 『普濟本事方』이 전해지고 있고 이외에 『仲景三十六脈法圖』 『治法八十一篇』 『翼傷寒論』 『辨類』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3. 현재 전해지는 『類證普濟本事方』 즉 『本事方續集』은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에 실려있고 裘吉生の 『三三醫書』에 收錄되어 있지만 許叔微의 저서로 보기에는 많은 疑問點이 있다.
4. 『傷寒百證歌』는 『傷寒論』의 주요내용과 역대 의서와 醫家의 主張과 處方을 100首의 七言歌訣로 지은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歌訣體 醫書이다.
5. 『傷寒發微論』은 총 22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仲景의 奧微를 發明한 傷寒論의 참고서이다.
6. 『傷寒九十論』은 모두 90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숙미가 傷寒病證을 치료한 醫案을 모은 것이다.
7. 『類證普濟本事方』은 모두 10卷 25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373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가 시험한 처방과 새로 터득한 의학이론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參考文獻

1. 劉景超, 李具雙 主編.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 裘慶元輯. 三三醫書第一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3. 陳克正 編著. 宋代名醫許叔微.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89.
4.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許叔微著.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